

군인들 건강 '따끔하게' 지켜요!

바라밀현장

수호사 공덕회 '따주기 봉사'

"아! 너무 아름답다."
"흠뻑나는 것 보다 아파요? 이렇게 따주면 금방 나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따주기 한 자리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자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 문국환(21) 훈련병에게 봉사자 김선자(46) 씨가 "따주기 한 자리는 3시간 동안 물을 묻히지 말라"고 당부한다.
23일 오후 10시 강원도 철원군에 자리 잡은 3사단 신병교육대 법당 보림사에서는 '따주기 봉사'가 한창이다. 어머니 같은 봉사자들에게 손바닥을 맡긴 채 엄살을 피우던 군인들의 얼굴에 금세 웃음이 번진다. "어, 신기하네. 답답하던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매주 넷째 주 일요일이면 군법당을 찾아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 수호사 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 회원들. 이날도 40여 명 봉사자들이 한 시간에 걸쳐 따주기를 했다. "군인들이 흔히 앓는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 무좀, 우울증 등도 따주기로 치료할 수 있다"는 안순자 씨는 "아들 같은 군인들의 병도 치료해주고 조금씩이나마 간식도 제공하니 군포교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15년째 철원, 화천, 파주 등 전국의 군법당을 찾아다니며 봉사하고 간식공양을 하고 있으며, 공덕회의 활동은 '군포교'와 다르지 않다.

'따주기'란 체할 때 손가락 끝을 따주는 것과 같이 '삼릉침(뚝이 삼각형으로 갈라진 침)'을 이용해 신체의 각 부위에 해당하는 손바닥을 자극해 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간단한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 입적한 성훈 스님이 민간요법인 '따주기'를 연구해 체계화 한 '성훈따주기'는 이제 무구 스님(서울 수호사 주지)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보현사와 서울 수호사에서 따주기 강좌를 열고 있는 스님은 "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 쯤 된다"고 설명한다.
따주기는 수호사와 보현사에서 열리는 3개월 과정의 강의를 들으면 기초적인 것은 모두 배울 수 있다. 강의를 이수한 사람들 중 공덕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수호사 따주기 공덕회에는 200여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매주 화요일에는 수호사 약사전에서 일반인들, 셋째 주 금요일이면 서대문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따주기를 한다. 또 넷째 주 일요일이면 군법당을 방문하며, 각 지역별로 '1사찰 1부대 결연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장애아동시설인 상락원을 방문하는



◇23일 강원도 철원의 3사단 신병교육대 법당에서 공덕회 회원들이 군인들에게 따주기를 해주고 있다.
공덕회 회원들은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 삼릉침을 쟁겨들고 소책새마를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드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봉사자들의 보수로 충당하고 있다.
6년째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장화숙(70)씨는 "따주기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삼릉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 공덕회는 앞으로 더 많은 군법당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따주기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고 싶다"는 무구 스님은 "더 많은 불자들이 따주기 봉사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조흥은행 359-06-270726 김동금 (02)313-3060
철원=여수경 기자

15년간 봉사, 간식공양 등 군포교에 일조 군법당 방문 '1사찰 1부대 결연운동'도



공덕회 김문수행 보살 "봉사도 하고 건강도 지켜요"

"따주기는 누구든 쉽게 배워 내 건강도 지키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따주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녀님 목사님 등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매 학기 80

여 명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공덕회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면 군법당과 연락해 인원을 파악하고 법포시 받은 책과 염주, 간식 등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챙기는 김문수행(58) 보살. 그는 벌써 13년째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공덕회의 큰언니'다.
20년 전 심각한 저혈압을 앓았던 문수행 보살은 성훈 스님을 만나 따주기로 병을 치유했고,

그 인연으로 공덕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따주기 강좌 회원을 관리하고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다보니 그만의 '따주기 노하우'도 쌓았고, 봉사활동 준비도 철저 해내는 문수행 보살은 "인생의 황혼기를 따주기 봉사로 회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보람차다"고 말한다.

A거사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한 분이였다.
거기다 매사에 간섭도 많아서 식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편하게 놔두지 않았다.
부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아무데서나 폭언이 나오고 손이 올라갔다.
A거사는 젊은 시절 골수염을 앓아 다리를 몹시 저는 장애인이었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말참견을 하고 주장을 세우는데 보고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부인은 항상 이런 남편의 성격을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애뜻한 마

음으로 감싸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서 남편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마음을 항복받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부인의 이런 정성은 헛되지 않

마음비추기

았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이 크게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부인을 따라 절에 다니다 발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님이 일러주는 수행법을 받은 다음 열심히 정진하였다. 어찌나 마음공부와 수행

에 힘쓰던지 스님의 법문을 녹음하여 하루 종일 틀어놓고 심지어 잘 때도 그것을 틀어놓는가 하면, 새벽마다 앉아서 좌선을 했다. 그렇게 한 일년 했을까, 거사님은 특히, 입으로 지은 업이 많다고 여기

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거사님은 손으로 토크를 넣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눈을 부라렸고 이젠 버려야 흥내까지 내느냐고 비난을 했다.
거사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

송하던 그 마음이었다. 거사님은 충격을 받았다. 토크 하나를 더 집어넣고 마음을 추슬러 집에 돌아온 거사님은 앉아서 확인하였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두터운 '나'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 왔는가를, 그리고 그 '나' 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남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그 뒤로 거사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나' 가 없는 마음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어렵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적연(유마선원장)

'나' 를 버려야 큰 자유 찾아와

고 목연을 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목연을 하는 거사님께 어떤 체험이 찾아왔다.
어느 날 집으로 가기위해 버스에 올라 토크를 집어넣었는데 운전기사가 잘못알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

다.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화가 치미는 순간이었다. 이 때, 이러한 거사님의 마음을 크게 때리는 마음 하나가 더 있었다.
바로 수행방법으로 삼고 늘상 암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일 법사 (E)

세계에 한국 선불교 전파

"붙잡는 것은 쓸데 없고, 거절은 고통스런 일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다루듯 가볍고도 친절하게 마음을 돌보세요. 너무 느슨하지도, 꼭 조이지도 말고..." ('깨달음을 향한 느긋한 안내' 중에서)
성일(Martine Batchelor) 법사는 195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돼 학생운동을 하다가 18세 때 우연히 <법구경>을 접했는데,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는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던 것.
"나의 분노도 다스릴 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녀는 나름대로 명상을 배우다가

립한 선지식이었다. 구산 선사의 지도 아래 참선과 경전 공부에 밤낮없이 정진한 덕에 그녀는 5년만에 한글과 한문을 읽게 되었고 통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85년 까지 송광사에서 공부하고 대만과 일본 비구니 사원에서 참선하기도 했다.
81년 구산 선사의 통역을 맡은 성일 스님은 미국과 유럽으로 전법여행에 나선 구산 선사를 동행하기도 했다. 구산 선사는 1982년(당시 74세) 제3차 미주순방 끝에 유럽쪽으로 발길을 돌려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불승사를 개원하고 10월에는 미국 카렐에 대각사를 개원하기에 이른다. 스님은 70노구를 이끌고 동부서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해 과로를 무릅쓰고 헌신한 결과, 송광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선원을 개설하여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장구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성일 스님은 구산 선사의 저서인 <한국의 선불교(The Way of Korean Zen)>를 번역했으며, 한국 비구니 수좌들에 대한 적지 않은 기록물을 남겼다.
그러나 성일 법사는 85년 환속, 송광사에서 함께 공부하던 스티븐 배첼러(법천, Stephen Batchelor)와 유럽으로 돌아와 결혼했다. 영국 드븐시에서 6년간 샤르렝 재가불자회 멤버로 활동한 그녀는 영국의 가이아 하우스와 여러 불교단체에서 강연하거나 불교 상담가로 활약했다. 그녀는 또한 종교간 대화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최근까지도 그녀는 국제종교문화학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성일 법사

구산선사 저서번역 등

비구니에 대한 기록 남겨

85년 환속 후 계속 전법

21세에 아시아로 여행을 다녔던 중 태국에 잠시 머물다 한국의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났다. 참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74년 무조건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그녀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1년 뒤였다. 한 보살이 "남편과 애들이 없이 자유로울 때 출가의 길을 걸어보라"는 권유에 수긍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드디어 75년 출가해 마르티네라는 이름을 버리고 '성일'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송광사에서 하루 10시간의 참선을 하며 선종을 공부한 성일 법사는 송광사 조계종림 초대법장 구산(1909-1983년) 선사의 자상한 가르침을 받을 때가 가장 완벽한 수행의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구산 선사는 희미해져가던 호남지방의 불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고려 보조국사 이래 연변히 계승되어오던 송광사 승보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확

92년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을, 96년에는 2001년 <여성 불교 입문(A Women's Guide to Buddhism)>으로 재발간된 <연꽃 밟으며 걷기(Walking on Lotus Flowers)>를 출간했다. 또 <선의 원리(Principles of Zen)>, <명상의 삶(Meditation for Life)>를 썼다.
현재 성일 법사는 프랑스를 거점으로 남편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명상수련회를 갖고 있다.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말하고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그녀는 많은 잡지에 한국의 선자와 여성 불교, 불교와 생태학, 사찰 음식 등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일상 생활 속 명상, 불교와 사회적 행위, 종교와 여성문제, 참선과 선종사, 역사와 전설 등 광범위하다.(계속) 김재경 기자

(봉) 부처님 오신날 1만등 불사 및 천도재 (행)

◆ 입재 : 3월 21일 금요일 (음력 2월 19일) ◆ 회향 : 5월 8일 목요일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 49일 기도 기간중 천도재와 매주 일요일은 칠칠재 영가시식을 병행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1만등은 1인 1등을 원칙으로 1만원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영가등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작불사 대원력을 세워 10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희심을 발휘하여 본인의 원력에 따라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동참하시어 뜻하신 바 모두를 이루십시오.

1000일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동참비 1인 1일 1000원씩 모아서 직접 시주하셔도 되고 온라인입금도 가능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인 100만원을 일괄 시주 동참하고 1000일동안 기도정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0일 기도 동참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67-24-0016-901
- 농협 : 201058-52-003260
- 예금주 : 박경자

차량운행시간표

- ▶ 철야기도 : 토요일 밤 10시 10분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앞 출발 → 장흥농협 앞 밤 10시 30분
- ▶ 일요일법회 : 일요일 오전 10시 10분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앞 출발 → 장흥농협 앞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전화번호 : 0311855-5501, 3
팩 스 : 0311855-5502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주지 석해련 합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야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별진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